

#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 제17편

마른 뼈들의 각성: 기다림의 때에 정결과 믿음으로의 부르심

Jeff Pippenger

2023-11-17

거리에서 죽어 누워 있는 마른 뼈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음성'을 듣는 것은,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성취되어 보혜사께서 오셨기 때문이다. 밀러주의자들의 첫 실망 때, 그들은 자신들이 열 처녀의 비유에서 지체하는 때에 들어와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실망한 이들은 성경을 통해 자신들이 기다림의 때에 있으며, 그 환상의 성취를 인내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다. 1843년에 그들의 주를 바라보게 했던 동일한 증거가 그들로 하여금 1844년에 그분을 기대하게 했다." 영적 은사, 1권, 153쪽.

밀러주의자들로 표상된 사람들은 첫 실망의 경험을 반복하며, 그렇게 할 때 그들 또한 처녀의 비유의 지체하는 때에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 진리를 보게 하는 것은 오직 보혜사의 영향뿐이다. 보혜사에 의해 이루어진 그 인식은, 에스겔이 마르고 죽은 뼈들의 골짜기를 향하여 선포하라고 지시받은 첫 번째 예언으로 표상된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이 뼈들에게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와 말씀들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생기를 너희 속에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을 입히며 너희를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두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였더니, 내가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보라, 진동이 있어 뼈들이 서로 모여 각기 제 뼈에 맞아 연결되더라. 또 내가 보니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였으나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에스겔 37:4-8.

"소리"는 성령을 상징한다. 그 시점에 처녀들은 자신들이 지체하는 때에 있음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들이 지체하는 때에 있음을 깨달았을 때, 실망한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경의 지침은 매우 풍부하다. 예레미야는 그들이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으로 결코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가르친다. 그것은 빌라델비아에게 주신 메시지에서 "사탄의 회당"이다. 또한 그들은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해야 한다. 귀한 것과 천한 것의 대비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몇 해 전 나는 윌리엄 밀러의 꿈을 적용해 보면서 이 예언적 구분을 나 스스로 깨달았다. 나는 보석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가짜 보석을 변질된 교리로 바르게 규정했다. 그 후 제임스 화이트 역시 윌리엄 밀러의 꿈을 적용했으며, 그의 적용에서 보석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가짜 보석을 진리를 고백한다고 하는 거짓 신자들로 식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내가 그 꿈에 관해 제임스 화이트가 무엇을 가르쳤는지 살펴보니, 우리 둘 다 옳았음을 깨달았다. 보석은 하나님의 신실한 자들을 나타낼 수 있고, 가짜 보석은 불신실한 자들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나 보석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나타낼 수도 있고, 가짜 보석은 거짓 교리를 나타낼 수도 있다. 제임스 화이트는 밀러의 꿈을 그가

살던 당시의 역사에 적용했지만, 나는 그 꿈을 말세의 역사로 이해했다. 이 두 가지 적용을 함께 보면, 사람은 자신이 믿는 바와 같은 존재가 되며, 만일 그들이 그릇된 교리를 붙들기로 선택한다면 그들이 연관되어 온 그 교리들과 함께 먼지 빗자루를 든 사람에게 의해 창밖으로 쏠려 나가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우리는 우리가 먹는 것이다.

실망한 이들이 자신들이 지체의 때에 있음을 알게 될 때, 예레미야에 따르면 그들은 귀한 것을 천한 것에서 가려내야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 대적하는 사람들이 때때로 드러내는 그 지혜를 갖게 되는가? 사탄 자신도 하늘의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고, 선뿐 아니라 악에 대해서도 지식을 갖고 있다. 그는 귀한 것과 비천한 것을 뒤섞는데, 바로 이것이 그가 사람들을 속일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러나 사탄이 하늘의 광채로 옷 입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를 빛의 천사로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그 유혹자는 자기 방식대로 교육받고, 그의 영으로 감화되고, 그의 일에 맞게 준비된 대리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우리가 그들과 협력해야 하겠는가? 우리가 그의 대리자들의 저작을 교육을 받는 데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치유의 사역, 440쪽.

귀한 것과 천한 것은 진리와 오류를 상징한다. 또한 두 부류의 사람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터는 견고히 서 있으며, 이런 인침이 있다. 주께서는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아신다. 또,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그러나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으며, 어떤 것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것은 천하게 쓰인다." '큰 집'은 교회를 가리킨다. 교회 안에서는 귀한 것뿐 아니라 비천한 것도 발견될 것이다. 바다에 던져진 그물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모은다. Review and Herald, 1901년 2월 5일.

예레미야는 그가 돌아오려면 미련한 처녀들과 분리되어야 하며, 또한 미련한 처녀들의 그릇된 가르침과도 분리되어야 한다는 지시를 받았다. 14만 4천은 완전한 연합에 이르는 자들이다. 환상이 말할 때 하나님의 "입"이 되려면, 예레미야는 에스겔의 네 바람에 관한 둘째 기별로 인침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반드시 성취해야 할 일을 대표한다. 그 환상은 심판이 임했을 때 밀려주의 역사에서 말했으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말하고 셋째 화의 심판이 임할 때 14만 4천의 역사 속에서도 말한다. 그때 예레미야가 지목한 그 일을 성취한 자들은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높임을 받는다.

주께서 실망한 자들을 죽음에서 깨우시려고 보혜사를 보내실 때, 주께서는 그들이 주일법 위기에서 그의 대변인이 되려면 반드시 이루어야 할 정결의 사역을 지적하신다. 이사야는 예레미야의 권면에 동의한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선포하는 자, 복된 소식을 전하고 구원을 선포하는 자, 시온에게 '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고 말하는 그 사람의 발이 산 위에서 얼마나 아름다운가! 네 파수꾼들이 소리를 높일 것이며, 그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노래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다시 회복하실 때 그들이 눈으로 똑똑히 볼 것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의 폐허들아, 함께 기뻐 소리치며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다. 이사야 52:7-9.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과 "평화와 구원을 선포하는" 자들이 "그들의 목소리를 함께 높이니", 이는 그들이 "눈과 눈을 맞추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언급한 자들과 영향력을 합하는 몇몇 다른 이들도 내게 보여졌고, 그들은 함께 공동체로부터 이탈시키고 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한다.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은 하나님의 진리를 실추시킨다.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한 믿음 안으로 이끌어 연합하게 하시어, 모두가 한 마음과 한 판단을 가지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이 이 시대의 엄숙하고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동일한 시각을 갖도록 믿음의 일치로 이끌어 가는 동안, 사탄은 그들의 전진을 대적하여 일하고 있다. 예수님은 자신의 도구들을 통해 모으고 연합시키는 일을 하신다. 사탄은 자신의 도구들을 통해 흩어지고 분열시키는 일을 한다.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의 집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체질하리니, 마치 체로 곡식을 까부르듯 할지라도, 한 톨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서는 지금 자신의 백성을 시험하시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품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도덕적 가치를 달아 보고,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신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는 이들 가운데에도 부패한 마음이 있으나, 그들도 시험과 연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지 않는 곳에서조차 어둠 속에 숨겨진 것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는 진리의 전진을 가로막아 온 걸림돌들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율례와 법도를 선포할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을 두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대장은 그의 백성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끄시며,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변화되어 하늘로 옮겨질 준비를 갖추게 하시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려는 자들, 인도받기를 원하지 않고 자기 의로 만족하는 자들은 뒤에 남겨두신다.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둠이라면, 그 어둠이 얼마나 크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멀어지면서도 자기확신의 정신에 빠져들게 하여 자신들이 옳고 빛 가운데 있다고 믿게 만드는 것보다 인간의 마음을 더 속이는 미혹은 없다. 그들이 소중히 여기는 빛은 어둠이다. 증언, 제1권, 332, 333쪽.

'기쁜 소식을 전하는'이라는 표현은 한밤중의 외침의 역사를 지목하기 위해 이사야서의 본문에서 두 차례 반복되며, 귀한 것이 천한 것과 분리될 때 이루어지는 연합에 대한 이사야의 묘사로 이어지는 구절들도 역시 그 역사를 지목한다.

깨어라, 깨어라, 시온이여, 네 힘을 입어라.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이제부터는 할례받지 않은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티끌을 털고 일어나 앉아라, 예루살렘이여. 사로잡힌 시온의 딸아, 네 목의 결박을 스스로 풀어라. 이사야 52:1, 2.

예레미야는 첫 번째 실망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들이 지체의 때에 있음을 깨닫는 사람들을 표상한다. 이사야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깨어라, 깨어라"고 명한다. 그들은 깨어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교회에는 더 이상 무할례자나 부정한 자가 없게 되는 지점에 이르게 된다. 이는 그들이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가르는 일을 성취했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그의 심판이 세상 위에 더욱 두드러지게 임하기 전에 그의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이 지구 역사의 끝에 빠르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 끝은 매우 가깝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백성에게 주님을 간절히 찾을 필요성을 촉구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잠들어 있는데, 그들의 육신의 잠에서 그들을 깨우기 위해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심판이 세상 위에 더욱 뚜렷하게 내리기 전에, 주님은 자신의 교회가 정결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오시는 날을 누가 견디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설 수 있겠는가? 그는 제련하는 자의 불 같고, 표백하는 자의 비누와 같기 때문이다. 그는 은을 제련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로 앉아 레위의 자손들을 정결하게 하고, 그들을 금과 은처럼 정련하여, 그들이 주께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가식의 가면을 벗기실 것이다. 참된 것과 가짜를 뒤섞어도 그분을 속일 수 없다. 그는 '정련하는 자의 불'과 같아서, 귀한 것과 천한 것, 찌꺼기와 금을 가려 내신다.

레위인들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그분의 특별한 일을 위해 그분에 의해 따로 구별되어 세워진다. 모든 참된 그리스도인은 제사장적 자격을 지닌다. 그는 세상에 자신의 하늘 아버지의 성품을 나타내는 거룩한 책임을 맡는 영예를 받는다. 그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을 잘 유념해야 한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의 태양이 그 날개에 치유를 품고 떠오를 것이며, 너희는 나아가 외양간의 송아지들처럼 자라나게 될 것이다. 또 너희는 악인을 밟게 될 것이다. 이는 내가 이것을 행하는 그 날에 그들이 너희 발바닥 아래에서 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 종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 곧 내가 호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에게 명한 율례와 법도니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Review and Herald, 1906년 11월 8일.

거짓 교리를 고수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voice"로 시작하는 역사 속에서 분리될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개인적인 성화의 경험을 이루게 하시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은 광야에서 외치는 "voice"로 시작하는 역사에서 "gold"로부터 분리될 것이다. 그들은 라오디게아가 빌라델비아로 넘어가는 바로 그 지점에서 라오디게아인으로 남을 것이다.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하는 일은 거의 전적으로 레위의 자손을 정결하게 하시려고 갑자기 오시는 언약의 사자의 사역이지만, 우리도 참여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하여 온 것같이, 내가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나 없을 때에는 더욱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 2:12-15.

예레미야는 다가올 심판에서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귀한 것과 천한 것을 구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권고를 예레미야가 듣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가 그 일을 맡기로 선택하기만 하면 위로자의 임재가 이미 마련되어 있음을 보여 주었다.

구원을 얻는 일은 동역, 곧 공동의 일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는 성품 속에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해 필요하다. 사람은 완전해 이르기를 가로막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간절히 힘써야 한다. 그러나 그는 성공을 위해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한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적 능력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람도 일한다. 유혹을 거스르는 일은 사람에게서 나와야 하며, 그는 그 능력을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한다. 한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긍휼과 능력이 있고, 다른 한편에는 연약함과 죄성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을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동의와 협력 없이는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 성령께서는 사람에게 주신 능력과 기능을 통해 역사하신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목적과 욕망과 성향을 하나님의 뜻과 조화시킬 수 없지만, 우리가 '원하게 되기를 원한다면' 구주께서 이것을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곧 '상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항하여 자신을 높이는 모든 것을 쳐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0:5." 사도들의 행적, 482.

요한계시록 11장의 삼일 반, 곧 마른 뼈들이 거리에서 죽어 누워 있는 그때는 "광야"를 상징하며, 이 "광야"는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를 가리킨다. 삼일 반의 흠어짐이 끝날 때, 십사만 사천에 들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깨어나고 티끌을 떨쳐 버려야 한다. 화이트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주께서는 그분의 심판이 더욱 두드러지게 세상에 임하기 전에 그분의 교회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녀는 "정결한 교회"와 관련하여 예레미야가 말한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분리해 내는" 분리 과정을 언급한다. 또한 그녀는 말라기 3장과도 연결하는데, 그곳에서는 한 사자가 언약의 사자를 위해 길을 예비한다. 그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이사야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언약의 사자는 그리스도이며, 그는 14만 4천과 언약을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레위인들처럼" "그의 특별한 일을 위해 그가 구별하신" 자들이다. 이어 그녀는 그들을 제사장으로 규정하고, 예수의 말씀을 인용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

지체기의 끝에는 뚜렷이 나타나는 정결의 과정이 있다. 이는 주께서 십사만 사천에게 이루게 하실 특별한 사명이 있으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의 심판이 세상에 더욱 뚜렷이 임하기' 전에 그분은 정결케 된 교회를 가지실 것이다. 그의 심판은 이미 세상에 임해 있지만, 일요일 법령 때에는 '하나님의 파괴적인 심판'이 내리기 시작한다.

그 심판들은 "진리를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이들을 위한 자비의 때"이다. 그러나 필요한 정화 과정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심판들에 자비가 없다. "더욱 분명하게" 임하는 "심판들"은 표징이 되는 심판을 가리킨다. 그것들은 신호를 나타내며, 성령은 그

심판들로 인해 빚어지는 혼란과 혼동을 사용하여 "거짓된 휴식일"을 지키는 이들과 "양심적으로 주의 안식일을 지키는" 이들 사이에 구별을 표시하신다. 이는 "세상이 경고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신호가 되는 그 심판들은, 아직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14만 4천의 기치를 알아보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배경이다.

하지만 화이트 자매는 말라기 3장을 단순히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라기서 4장의 마지막 구절들도 함께 언급하며, 다시 한 번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예비하도록 되어 있던 "음성"을 언급한다. 그 마지막 구절들은 언약의 사자를 위한 준비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는 것과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또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는 것에 관한 것이다. 그 "음성"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사자로서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오셔서 깨어났으나 실망한 자신의 백성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들이 기치의 사명을 이루도록 준비한다. 그런 다음 말라기는 그 "음성"의 사역에 관한 또 다른 측면을 다룬다.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실 것이며," 이 일을 호렘에서 주신 율법과 관련하여 이루실 것이다. 이사야의 '소리'이기도 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지적할 것이다. 이는 정결 과정의 일부이다. 죄의 정의는 오직 하나이며, 그것은 호렘에서 주신 율법을 범하는 것이다. 세례 요한은 엘리야였고, 그의 사역에는 바로 그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유대 광야에 와서 전파하며 말하였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한 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여,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하던 그 사람이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둘렀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러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 강 주변 모든 지역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와, 요단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며 자기 죄를 고백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중 많은 이들이 그의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었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리고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조상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으키실 수 있다. 이제 도끼가 벌써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져 버릴 것이다.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크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합당하지 않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실 것이다. 그의 손에 키가 있어,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깨끗하게 하시고, 알곡은 공간에 모아들이되,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실 것이다. 마태복음 3:1-12.

세례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삼 일 반 동안의 "광야"로 왔다. 이는 모든 선지자들이 자신들이 살던 때보다 말세에 관해 더 많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었다. 이는 "때가 가까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열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은 "소리"의 사역을 보여 주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는 오실 엘리야이기도 했다.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요한까지 예언하였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거든, 그가 바로 오기로 되어 있던 엘리야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1:13-15.

예수께서는 세례 요한의 예언자적 정체성이 하나의 시험이었다고 지적하신다. 그는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거든"이라고 직접 말씀하신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며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권하신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인가? 성경의 마지막 광야에 오는 그 음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언약의 사자를 위한 길을 예비하여 그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징조적 심판의 때에 특별한 사역을 하도록 십사만 사천을 준비하게 하려 한다는 것을 들으라는 것이다.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으며,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의 "음식"은 이슬람의 메시지였는데, "메뚜기"라는 말은 이슬람을 가리키고 꿀은 그의 입에 달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가 먹은 달콤한 메시지는 "야생" 아라비아 나귀에 관한 것이었고, 이는 성경에서 이슬람의 최초의 상징이었다. "메뚜기"로도 표현되는 이슬람의 야생 아라비아 나귀에 관한 그 달콤한 메시지는 그의 의복에도 짜여 있었는데, 낙타 역시 이슬람의 또 다른 상징이기 때문이다. 요한이 먹은 음식이 곤충이 아니라 메뚜기나무를 가리킨다 하더라도, '메뚜기'라는 말을 이슬람의 상징으로 사용하는 것은 억지 해석이 아니다. '메뚜기'라는 말은 이슬람의 상징이며, 요한은 어떤 물질적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의 식단이 그가 받아들인 예언적 메시지를 상징한 것이다.

그의 허리띠는 하박국서에 나타난 '예언'이었다. 그 예언은 첫 실망, 열 처녀의 지체하는 때, 그리고 거룩한 도표들에 제시된 재림주의의 기초를 하나로 묶어 준다. 하박국은 그 모든 진리를 하나로 묶는 예언의 허리띠였다.

이 묵시는 아직 정한 때를 위하여 있으며, 끝에는 그것이 말할 것이며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오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스스로 높아진 그의 영혼은 그 안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3, 4.

"음성"의 경고를 이루는 메시지들을 허리띠처럼 하나로 묶어 준 예언적 메시지는 지체되었으나 마침내 말할 그 환상과 관련된 열 처녀의 비유이다. 한밤중 외침의 환상은 "영혼이 스스로 높아진" 비천한 자들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귀한 자들을 구별한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는 그 "음성"이 두르는 허리띠이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이사야 11:5.

2020년 7월 18일의 실망 이후, 그 실망 가운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도착했을 때, 그의 기별은 2001년 9월 11일 이래로 변함없이 전해져 온 바로 그 동일한 기별이었다. 오실 엘리야에게서, 기다리는 실망한 죽은 마른 뼈들에게 전해진 그 기별은,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다른 자녀들이 의를 배우도록 하는 배경을 제공하는 '표징이 되는 심판들'이 이슬람이라는 것이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니, 지극히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나이다. 참으로, 여호와여, 주의 심판의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나이다. 우리 영혼의 소원은 주의 이름과 주를 기억함에 있나이다. 밤에 내 영혼으로 주를 사모하였고, 정녕 내

속에 있는 내 영으로 주를 부지런히 찾으리니, 주의 심판이 땅에 임할 때에 세상의 거민들이 의를 배우리이다. 이사야 26:7-9.

오기로 한 엘리야였던 세레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사흘 반에 해당하는 '광야'에서 들리는 '소리'이다. 그의 사명에는 스스로 높아져 있고 조상들의 영적 유산을 신뢰하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음을 감지하는, 재림주의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 세대를 식별하는 일이 포함된다. 그들은 네 번째 세대인데, 그리스도와 정반대되는 세대로 완전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독사의 자식들이지만, 자신들이 실제로 어린양의 세대라고 주장하기 위해 여전히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세운다. 어린양의 세대는 베드로가 말한 택하신 세대이며, 어린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그를 따르는 자들이다.

요한은 그의 메시지를 들으러 온 사람들의 죄를 분명히 드러냈으니,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또한 그는 자신을 뒤이어 오실 한 분이 계시며 그분이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실 것이라고 알렸다. 그분은 언약의 사자이시며, 창문 밖으로 가짜 동전과 보석들을 쓸어내고 본래의 보석들을 회복시키는 "먼지술을 든 사람"이다. 그리하여 그 보석들은, 첫째 천사의 운동에서 윌리엄 밀러가 천사들의 인도를 받아 본래의 보석들을 모으던 때보다 열 배 더 밝게 빛난다.

세레 요한은 라오디게아적 재림교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의지하는 확신을 꾸짖는 데 있어 매우 직설적이었다. 이는 오리라 한 엘리야의 사명이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또 그 반대로 돌이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 일에는 처음과 나중의 성경적 적용 원리가 나타날 뿐 아니라, 흩어진 상태에 있고 원수의 땅에 있으며 광야에서 죽어 있는 자들을 위한 처방도 포함되어 있다. 그들은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한다.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 그들은 사흘 반의 광야 기간 동안 자신들이 주와 동행하지 않았음을 또한 시인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셨음을 인정해야 한다.

너희 중에 남은 자들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쇠잔할 것이며, 또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함께 쇠잔하리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곧 그들이 내게 범한 허물과 또한 나를 거스르며 행하였음을 자복하고, 나 역시 그들에게 대적하여 행하고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데려갔음을 인정하며, 그때 그들의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 낮아져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받아들이면, 그때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또한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또한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겠으며, 나는 그 땅을 기억하리라. 레위기 26:39-42.

저주는 그들이 땅의 안식년들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장차 올 엘리야였던 세레 요한은 요한계시록 11장의 삼일 반 동안 광야에서 울리는 '음성'을 예표했다. 그는 죽은 마른 뼈들에게 호렘에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라'고 일러 줄 것이었고, 그들이 그렇게 하면 언약의 사자는 그들의 조상들의 언약을 '기억'할 것이었다. 그러나 오직 그들이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를 자백하고, 더 겸손하게는 하나님께 '그들이 범과한' 범과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때에만 그러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하나님께 '거슬러' 행해 왔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에게 '거슬러' 행해 오셨음을 인정해야 했다.

그들은 또한 자신들이 요한계시록 11장의 거리에 있는 죽어 마른 뼈들이었음을 깨달아야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원수의 땅으로 데려오셨음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며, 원수의 땅은 죽음이다.

세례 요한에 따르면, 그들은 또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에도 답해야 하는데, 이는 요한이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였느냐?"라고 물었기 때문이다.

다음 글에서도 이 주제들을 계속 다루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이렇게 명하신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를 알리라." 주께서는 이 백성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으며, 의를 행한 나라처럼 내 길 알기를 기뻐한다." 여기 자기기만과 자기 의와 자기만족에 빠진 백성이 있으며, 종에게는 크게 외쳐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라고 명하셨다. 모든 시대에 이러한 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행해져 왔고,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증언, 5권, 299쪽.